

남궁민, 결혼 4년 만에 아빠 된다…"새 가족 맞이할 준비"

등록 2026.06.18 10:49:38



[서울=뉴시스] 배우 남궁민, 진아름 부부. (사진=진아름 인스타그램)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우 남궁민·진아름 부부가 결혼 4년 만에 부모가 된다.

남궁민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18일 "남궁민·진아름 부부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영역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남궁민 배우와 가족에게 찾아온 소중한 축복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남궁민과 진아름은 2015년 단편영화 '라이트 마이 파이어'에서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7년 열애 끝에 2022년 10월 결혼했다.

